

제 86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 결과

『2007년 HLM 및 개발글로벌 포럼 의제 검토,
나이지리아부채 환매의 DAC 통계 포함 문제, ODA 국제 컨퍼런스』

제 86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가 2007. 3. 13(화)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어 2007년 고위급 회의(HLM) 의제를 최종 검토하였음.

개최를 환영하고 우리의 개발원조 확대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등 향후 개발 원조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I. 핵심요지

가. 2007년도 고위급 회의(HLM) 의제와 일정 및 토론문서가 확정되었는데, 동 회의 및 개발글로벌 포럼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람.

나. 나이지리아 부채환매의 ODA 적격성에 대한 최종문안이 합의되었으며, 2001년 원조 언타잉 권고안을 LDC가 아닌 고채무 빈곤국(HIPCs)으로 확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대체적으로 합의가 도출됨.

다. 3.7(수) 서울에서 개최된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 보고에 대해, DAC는 성공적인 국제컨퍼런스

II. 상세 회의 결과

1. 2007년도 고위급 회의(HLM) 준비

가. 2007 고위급 회의(HLM) 의제(안) [DCD/DAC/A(2007)5] 및 각 의제별 토론을 위한 질문 [DCD/DAC(2007)27]을 확정하고, 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기로 함.

- 다만, 일정 중 non-DAC 공여국과의 비공식 조찬회의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공여국의 개발글로벌 포럼 참석 여부가 아직 최종 확인되지 못한 관계로 확정하지 못함.

- OECD 회원국 측의 참석범위는 DAC 의장단 및 outreach 그룹 2개국(이태리, 터키)이 참석하는 수준으로 제한
- 사무국은 브라질 및 인도의 참석자는 확정되었으나, 러시아 및 중국은 계속 확인중이라고 함.

나. 이민과 개발, 거버넌스 이슈(국가 취약성, 치안 및 부패), 파리선언의 정치적 과제 등의 의제 토의 문서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제시한 일부의 수정 제안을 반영하여 수정본을 즉시 배포하기로 함.

- 다만, 치안관련 사업의 ODA 적격성 의제에 대해서는 영국, 일본, 이태리, EC 등이 HLM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작업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등은 HLM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 이에 따라 의장은 HLM에서 동건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계작업반에서 동건을 계속 논의하고, HLM에서 결정에 따라 CPDC에서의 논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으며, 현재의 상황을 HLM에 보고하기로 함.

2. LDC 아닌 고채무빈곤국(HIPCs)으로 언타잉 권고안 확대 제안:

DCD/DAC(2007)12/REV1

- 사무국은 2.12 DAC 회의시 동건 논의를 반영

하고 graduation 개념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간 유보입장을 나타냈던 미국, 프랑스 등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일본, 캐나다, 독일 등은 검토에 시간을 필요하다고 함.

- 의장은 대다수 회원국이 동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곧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하하면서, 2001년 언타잉 권고안 이행 현황에 포함하여 HLM에 보고하겠다고 함.

3. 능력개발 : DCD/DAC(2007)24

- 사무국이 마련한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다수 회원국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논의해야할 지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음.
- 미국, 스위스 등은 GOVNET이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이슈라고 하였으며, 일본은 원조효과 작업반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의견을 보임.
- 또한 능력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동건 논의가 본격화 되진 않은 상황이므로 보고서 제출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사무국은 능력개발이 향후 동료검토에서 필수적인 검토대상 이슈로서 회원국들의 경험을

수집하고, 관련된 작업반의 공동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사무국의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의장은 능력개발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이슈이며 5월 DAC 회의에서 다시 논의기로 정리함.

4. 나이지리아 부채환매의 ODA 적격성 : DCD/DAC(2007)14/REV1

- 지난 2.15 DAC 회의에서 동건 논의에 따라 수정된 문안에 대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타협안 [DCD/DAC(2007)14/REV1]에 대해 회원국들이 최종 합의하였는 바, 이를 반영하여 2006년 ODA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5. 2007-2008 DAC 산하기구 Mandate : DCD/DAC(2007)25

- DAC는 산하기구들이 제출한 수정된 mandate를 승인하였으며, 원조효과 및 공여국 관행 작업반의 명칭을 원조효과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으로 변경기로 결정함.

6. 3.7(수) 개최된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 소개

- 우리측은 지난 3.7(수) 서울에서 개최된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를 보고하고, 특히 외교부장관이 국제개발원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바, 한국정부는 ODA의 증액, 원조효과성의 증대,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을 목표연도로 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고, 국제빈곤퇴치기금제도 도입, 혁신적 자원개발을 위한 리딩그룹 총회 및 OECD non-DAC 공여국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우리정부의 MDG보고서가 발간될 것임을 밝혔다고 소개함.

- 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Richard Carey 개발협력국장은 금번회의가 유엔의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었는바, 한국정부의 개발원조정책의 적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900명이상의 많은 청중이 참석한 매우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회의 개최능력에 비추어 오는 9월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 회의 준비가 잘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 Manning 의장은 한국이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고,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함. 영국과 네덜란드도 한국정부의 개발원조정책 방향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